



신현송 한은 총재, EMEAP 총재회의 참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구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한국은행은 21일 신 총재가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1차 EMEAP 총재회의'와 '제15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 수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농식품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서 K-푸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고유의 식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행사에서는 장독대를 비롯해 전통술 양조에 쓰이는 소줏고리 등도 전시된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의 유산이자 한국의 긍지인 K-식문화와 K-푸드를 알리기 위해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부산항만공사, 24일까지 '항만안전문화주간'

부산항만공사가 이달 24일까지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한다. 부산항 내 안전문화 확산 및 항만종사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항만 안전 재해예방 캠페인, 항만안전점검관 합동점검, 항만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항만공사



효성, 국가유공자에 여름 보양식 300세트 전달

효성은 중복을 앞두고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삼계탕·삼복죽 300세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왼쪽부터)장효정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정원 효성 전무가 지난 20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효성



고려대 동문 부부, 후배 장학금 10억 출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출신 동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식품공학과 동문 김병관(79학번)·이윤경(80학번) 부부가 'BKYN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며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은 고려대 식품공학과 학생들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

“타는 즐거움 선사”… 차세대 스포츠 ‘CB1000F’ 선풍

혼다코리아, 국내출시 행사 열어
헤리티지 귀환… 클래식 디자인
4기통 엔진, 균형잡힌 주행성능

“4기통 엔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시트 안정성과 코너 주행에서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21일 경기 성남시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차세대 레트로 스포츠 네아키드 모터사이클 'CB1000F'의 국내 출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출시를 앞두고 사전 주행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근 혼다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사업 종료로 발표한 이후 갖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표이사는 “한국은 모터사이클 사업에 대한 제도와 주행 환경 등 정착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21일 경기 성남시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CB1000F' 출시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브랜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 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일상부터 스포츠라

이당까지 '타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사전 예약에서 100명이 넘는 고객이 신청한 것도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B1000F는 '헤리티지의 귀환'을 콘

기보, 원자재 수입기업 금융지원

수입협회-하나은행과 '맞손'

총 500억 규모 보증료지원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입협회, 하나은행과 '수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환율·고유가 등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수입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수입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 국내 공급망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수입협회는 원·부자재와 핵심부품 수급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 수입기업을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7억원을 기반으로 추천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보는 보증료 감면(0.2%p ↓, 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협회가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0일 한국수입협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이정현 상무, 한국수입협회 운영미 회장, 기보 이재필 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원·부자재를 비롯해 첨단소재, 핵심부품 등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은 환율·유가 변동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수입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주요 원·부자재와 핵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공급망 안정과 수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 경영실적평가 ‘우수’

2년 연속 달성… 동일 기관 중 1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정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국내 로봇산업 육성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진흥원은 동일 유형 기관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진흥원은 정부의 로봇산업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정부의 핵심 로봇 정책인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미래 로봇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첨단로봇 실증지원센터 운영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등 굵직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국내 로봇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2년 연속 A등급 달성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산업계의 협력 덕분”이라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AI와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기업 성장 지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견련, 12주년 맞아 중견기업 인식확산

열두 글자 응원 온라인 행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인식 확산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 출범 1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 중견기업 열두 글자 응원 온라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 2014년 7월 22일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법정 경제단체로 출범했다. 10년 한시법으로 출발한 중견기업법은 지난 2023년 3월 존치 필요성에 대한 국회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에 기반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현재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견기업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중견련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중견련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중견기업 응원 메시지와 유튜브 '구독' 및 페이스북 '좋아요' 인증 사진을 댓글로 남긴 12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5만원권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국민대학교는 해외 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민대

국민대, 해외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

대만, 태국, 덴마크 등과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대만과 태국 대학, 글로벌 기업 등 해외 기관 10곳과 연구·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교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EBISION 2026' 기간 양해각서(MOU) 6건과 협력의향서(LOI) 4건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OU 체결 기관은 국립대만대학교와 대만 아시아대학교, 동하이대학교, 국립중산대학교, 태국 킹몽쿠트공과대학교 노스방콕, 전력·전자 기업 텔타일

렉트로닉스다.

덴마크공과대학교와 그리스 아테네 국립공과대학교, 스페인 무르시아대학교, 스웨덴 툴레오공과대학교와는 연구 협력을 위한 LOI를 맺었다.

국민대는 이들 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학생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교와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협약은 국민대가 개최한 '제2회 국제 정보처리연맹(IFIP)WG.8.4 국제 심포지엄' 기간 이뤄졌다. 행사에는 한국과 덴마크, 일본 등 11개국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i@

인사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엄태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교육기획과장 김근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부음 ▲김숙씨 별세, 김홍규씨 아내상, 김도연씨·김도형(한화라이프랩 FPI)씨 모친상, 박장우(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전무)씨 장모상, 박세원 학생 외조모상=21일 오전 10시2분,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054-434-9444